

칠레 해외 투자 유치 설명회 유치 (22.12.6.)

작성자주 칠레 대사관 작성일2022-12-08

제6차 칠레 해외투자 유치 설명회」(12.06) 개최 계기 광업·에너지·공공사업부장·차관은 △탄소중립 실현, △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친환경 투자 등을 강조하며 해외투자 유치 활동을 적극 전개한 바, 주요 내용 아래와 같음.

가. (광업부) 마르셀라 에르난도 광업부 장관은 칠레 정부가 제도적으로 투자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으며, 현재 칠레 내 논의 중인 여러 사회적 변화와 관련된 불확실성과 ‘수용(expropriation)’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에 대해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광업 분야 투자 환경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.

○ 한편, 칠레 경제의 핵심축인 광업 분야 발전을 위해 △광업 투자 관련 복잡한 절차 간소화 및 △구리생산성 향상, △공청회를 통한 투자자, 지역 정부 및 시민 간 소통 강화, △그린필드(greenfield)에서의 투자 촉진 중요성을 강조함.

나. (에너지부) 디에고 파르도우 장관은 지난 10년 간 투자가 꾸준히 증가한 만큼 △공공서비스 개선, △관련 행정 인력 충원, △프로젝트 간 사업 연계성 제고, △각 사업 별 피드백 수용 등 행정력 또한 이와 비례해 발전 해야한다고 강조함.

○ 또한,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△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투자 촉진, △지역 주민에 대한 화석연료 시대 이후 전망 관련 지식과 정보 제공, △관련 분야의 재정적 기반 확충 필요성 등을 강조함.

- 아울러, △에너지저장장치(ESS)의 보급·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계통 유지의 필요성, △2023년 2건의 관련 입찰 추진 예정 등 ESS 분야를 주요 핵심 사업으로 언급 (참고로 2023년 80여 건의 신재생에너지 입찰 추진 예상)

- 한편, 칠레 정부가 2020년부터 적극 추진 중인 그린수소 정책 및 「국가 에너지 정책」 관련, 현재 △러-우크라이나 전쟁, △원자재 가격 상승 등 국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에너지 전략의 연계성을 유지하되, 장기적으로 상황에 맞는 목표 조정 등 정책 이행에 대한 유연성 시사

다. (공공사업부) 호세 안드레스 공공사업부 차관은 △2022~2026년 간 전국적으로 총 52개의 민관협력 건설 프로젝트(130억불 규모, 43건 입찰)가 추진될 예정으로, 특히, △공항 건설 및 리모델링 사업을 주요 프로젝트로 꼽았으며, △칠레는 민관합작투자(PPP)에 충분한 경험을 보유한 국가라는 점을 강조함. (참고로, 1999년 이래 현재까지 270억불 규모의 108건의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)

- 아울러, 동인은 공공사업부 정책인 ‘건설2.0’의 목표가 △지역 및 인프라시설별 간극 해소, △건축 분야 효율성 향상, △건설 투자의 안전성 보장이라고 하고, 특히 최근 들어 △기후변화를 고려한 친환경 건설 및 순환경제 달성, △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역공동체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중요해졌음을 강조함.
-